



보도자료

책임자 조영현 실장(금융시장분석실, 3775-9032)
 작성자 조영현 연구위원(3775-9032)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보도 2023. 10. 5(목) 09:00부터
 매수 총 4매

보험연구원,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 개최

2024년 보험산업, 가계의 초과저축 감소로 제한적 성장 전망
 보험이익은 증가하나 투자이익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
 건전성 관리 강화 및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노력 필요

- 보험연구원은 10월 5일(목) 오전 7시 30분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함
-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경제·금융환경 전망」을, 조영현 금융시장분석실 실장은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표함

2024년 국내외 경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균형으로의 진입 예상

- 2024년 국내외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저물가’의 ‘New Normal’ 시대와 다른 ‘더 낮은 저성장·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물가’의 새로운 균형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년 수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 리밸런싱 마무리에 따른 재화 소비와 수출, 설비투자 소폭 증가로 다소 개선될 것임
- 2024년 우리나라 경제는 소폭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충격 이전의 균형

보다 더 낮은 저성장으로 새로운 균형에 진입할 것임

- 새로운 균형 상황에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나, 국제유가 상승과 기후변화 심화, 고금리 지속, 중국경제 경착륙과 ‘Slowbalization’ 가속 등과 같은 다양한 잠재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어려움이 확대될 수 있음
- 2024년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초과저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024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2023년 대비 2.6% 증가 전망
생명보험 0.6%, 손해보험 4.4% 증가 예상

- 2024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실적 둔화에도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의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질병·건강보험과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0.6% 증가할 전망이다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퇴직연금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나, 성장률은 2023년(6.7%)보다 둔화된 4.4%가 될 것임

2024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이 예상되나 감소폭은 축소될 것

-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보장성보험과 일반저축성보험이 감소하나 변액저축성보험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23년 큰 폭의 종신보험 판매 확대 기저효과로 감소가 예상됨
 -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에도 연금보험 수요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임
 -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소폭의 회복세가 예상되나, 전체 규모는 침체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를 것임

○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대부분 종목에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됨

2024년 보험산업, 보험계약마진(CSM) 성장세 지속으로 보험이익은 증가하나,
투자이익의 변동성은 높을 것이며
건전성과 자산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

○ 보험산업의 보험계약마진(CSM)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23년과 2024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CSM 추세와 향후 초회보험료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의 대략적인 CSM 규모는 2023년 61.9조 원, 2024년 69.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손해보험*의 대략적인 CSM 규모는 2023년 64.6조 원, 2024년 67.9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를 대상으로 추정함

○ 높은 CSM 성장률로 인해 보험산업의 보험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투자이익의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긴축 통화정책이 시작된 2022년부터 회사 간 수익성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고금리 지속으로 이러한 경향이 2024년에도 지속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손익 관리 역량에 따라 회사의 이익 규모가 변동할 것임

○ 건전성이 낮은 회사들은 이익의 내부 유보를 극대화하고 자산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로 보임

-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회사일수록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으며 투자손익의 잠재 변동성이 큰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거시적 충격으로 건전성이 낮은 회사의 유동성, 수익성, 건전성이 더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24년 보험산업, 균형 성장과 소비자신뢰 제고가 필요하며
신채널 등장, 디지털 전환, 보험법률 개정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로 보험산업의 불균형 성장과 소비자신뢰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성 완화, 보험회사의 신사업 확대 등이 필요함
 - 보험시장의 높은 정보비대칭성에 기반한 공급·판매자의 전략으로 영업경쟁이 심화될수록 특정 보험상품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소비자신뢰 저하가 일어날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니즈에 기반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새로운 보장위험 발굴, 해외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균형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신뢰를 제고해야 함
- 아울러 보험산업은 신채널 등장, 디지털 전환, 보험법률 개정과 같은 현안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신채널 등장) 플랫폼의 보험상품비교추천서비스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는 상품 혁신, 판매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당국은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시행에 따른 보험시장의 변화와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코로나19 이후 제고되었으나, 사업모형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고도화, 디지털 보험 활성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 (보험법률 개정)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작업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첨부: 세미나 발표자료 각 1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